

제2차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과 사회적 맥락 (1958~1963)

문지은
심원고등학교

Social context and Characteristics of the 2nd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in 1958~1963

Moon, Jieun*
Shimwon High School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Feb 15 2018
Revised Mar 16 2018
Accepted Mar 24 2018

Keywords:
the 2nd national curriculum,
vocational education,
democratization of
education,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system

주제어:

제2차 교육과정,
실업교육, 교육의 민주화,
학제개편

ABSTRACT

This article aims at clarifying the social context in which the second curriculum revision took place. The revision started in 1958, was mainly focusing on strengthening vocational education and moral education. The experience-centered curriculum was accepted as an alternative to the new curriculum due to the influence of the American education mission that visited Korea at that time. However the revision had been postponed owing to the April 19 Revolution. Afterward the Democratic Administration propelled another revis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reflecting 'democratization of education' but it was interrupted by the May 16 coup. The military government tried to reflect the ideology of the military government as a revolutionary task and human transformation. The military government put off the Curriculum revision for a reorganization of the school system, and at last the 2nd National Curriculum was revised and proclaimed in 1963.

국문초록

이 글은 제2차 교육과정 개정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어났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1958년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도의교육의 강화, 실업교육의 강화가 주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미국교육사절단의 영향으로 경험중심교육과정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1960년 4·19 혁명을 거치면서 교육과정 개정은 미루어졌다. 이후 민주당 정부는 '교육의 민주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좌절되었다. 군사정부는 혁명과업과 인간개조라는 군사정부의 이념을 반영하려 하였다. 이후 실업교육과 관련한 학제개편 문제로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연기하였다. 이후 1963년 제2차 교육과정이 개정 공포되었다.

* Corresponding author, moonji79@snu.ac.kr

I. 서 언

우리나라는 학교의 교육 목적, 내용, 방법을 국가가 정한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 학교 교육을 논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교육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다. 교육사 연구자들은 주로 교육과정의 내용 분석¹⁾,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친 서구 이론²⁾ 등에 주목하였다. 한편 역사 교육 연구자들은 주로 역사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사회생활과 성립과 사회과 통합 문제³⁾, 국사 교과서 문제⁴⁾ 등에 주목하였다. 한편 차미희는 제3차 교육과정기 이후 국사교육과정을 둘러싼 논의의 전개 양상을 연구하여 국사과 독립의 역사적 맥락을 밝혔다.⁵⁾ 김성자는 교육과정 전체 시기를 대상으로 삼아 역사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내용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⁶⁾

이상의 연구들은 나름의 성과와 의미가 있지만 다음 몇가지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우선 역사교육 연구자들은 역사 교과에만 관심을 두어 교육과정 성립의 전체적 특성과 맥락을 놓치고 있다. 또 사회과 통합과 국사과 독립에 주로 관심을 두어 연구의 대상이 제3차 교육과정 및 그 이후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교육사 연구자들은 교육과정 개정의 일부 특징을 자세히 밝히는데 주력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적 맥락을 생생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요소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종합적인 파악이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연구의 지향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 이 글은 교육과정 개정의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여 보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정은 특정한 단일 요인이나 관련 교육관계자들의 의지만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중요 교육 정책은 교육계 내부의 요구나 논의로만 결정되지 않고 정치 세력의 이해 관계, 대중의 여론 등

1) 劉奉鎬, 『韓國教育課程史 研究』, 교학연구사, 1992.

2) 최정희, 「서구 교육과정 이론의 수용과 배제의 역사 - 제1차 및 제2차 국가교육과정의 재평가」 『韓國教育史學』 제39권 제2호, 2017.

3) 류승렬, 「해방후 교육과정 변천과 역사교과의 위치」 『歷史教育』 60, 1996.

조미영, 「해방 후 國史教科의 社會科化와 ‘國史科’의 置廢」 『歷史教育』 98, 2006.

4) 조성운, 「제2차 교육과정의 제정과 국사교과서의 편찬」 『韓國史學報』 66, 2017.

5) 차미희, 「3차 교육과정기(1974~1981) 중등 국사과의 독립 배경과 국사교육 내용의 특성」 『韓國史學報』 25, 2006.

6) 김성자, 『역사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내용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에 의해 복잡 다단한 변화를 겪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요인들이 교육 정책의 핵심인 교육과정 개정에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 추적함으로써 교육과정 개정의 새로운 부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개정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함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시기는 제2차 교육과정 개정기이다. 이 시기는 제1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역사교육에 외형적인 변화가 없어서 다른 교육과정 연구에 비해서 연구성고가 거의 없는 편이다.⁷⁾ 제2차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문교부의 사전 작업은 대략 195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본래 1960년 공포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963년에 공포되었다.⁸⁾ 개정 과정 중간에 4.19 혁명과 5.16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개정 작업은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정부의 세 정부에 걸쳐있다. 개정 과정이 길어지고 공포 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정치적 변혁으로 인해서 문교 행정이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재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직전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라는 교육적인 고려만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교육과정 정책은 정치적 필요나 대중의 요구 등과 떨어질 수 없으며 그러한 사회적 맥락이 교육과정 개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 글은 그러한 점에 유의하여 교육과정 개정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여론의 동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정의 사회적 맥락을 알아보고 그 안에서 교육과정 개정이 어떤 굴절을 겪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문교부 발간 『문교월보』 및 『교육평론』 등의 교육 잡지, 신문기사 등을 주요 자료로 삼았다.

II. 제2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A. 이승만 정부의 교육정책과 실업교육 강화 노력

미군정 아래에서 교육과정은 교수요목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1954년 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령, 1955년 각급학교 교과과정이 제정공포되었다.⁹⁾ 이른바 제1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것이다. 제1차 교육과정은 6·25 전쟁과 휴

7) 조성운, 앞의 글, 2017 ; 조건, 「제2차 교육과정기 민족주체성 교육의 시행과 국사교과서 근현대사 서술 내용 분석」 『역사와교육』 24집, 2017.

8)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Ⅲ)』 연구보고 RR98-8, 1998, 78쪽.

9) 제1차 교육과정 시기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현재와 달리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활동의 편제”를 의미했다. 그래서 제1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과정’을 별도로 공포하

전 성립 직후 제정되었으며 외세가 아닌 우리의 주체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마련된 교육사상으로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경험이 부족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한 채 시행되었다.¹⁰⁾

1958년 문교부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추진되었다. 문교부는 1958년 11월 교과과정 개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는데, 1959년 교과과정 검토와 준비를 거쳐 1960년에 최종 공포할 것을 기본 계획으로 삼았다. 당시 문교부는 교과과정 개정의 구체적인 이유로 ① 원자과학발전에 따른 과학교육의 강화, ② 실업교육에 있어 특히 기술교육의 강화, ③ 국민의 기초학력의 저하 방지, ④ 道義教育의 강화를 들었다.¹¹⁾ 이와 더불어 문교부는 지금까지의 교육이 인문중점의 교육과정으로 장래 국민교육상 결함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¹²⁾

이 가운데 원자력 학습은 만성적인 전기부족에 시달리며 제한 송전을 실시하던 사회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였다.¹³⁾ 문교부는 원자력 교육을 시급한 사안으로 보고 본래 계획된 1960년 교육과정 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 1959년부터 초·중·고 교과내용에 원자력학습을 넣기로 결정하였다.¹⁴⁾ 한편 도의 교육은 이승만 정부가 학생의 예의범절과 사회기풍이 문란함을 비판하면서 유교윤리에 입각한 新 도덕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교육 정책이었다.¹⁵⁾ 당시 道義教育委員會가 발족되어 활동하고 있었고 道義교과서가 국정으로 발간되어 일선 학교에 보급되었다.¹⁶⁾

그러나 당시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 이유로 제기된 것은 바로 실업교육 문제였다. 實業教育에 대한 비판은 失業 문제 및 경제 상황과 연관된다. 1959년 7월 중앙교육연구소(소장 박희병)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지역의 경우 13년 이상 교육을 받은 자의 20.2%가 무직 상태였으며 오히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자보다 무직자 비율이 4% 가량 높았다.¹⁷⁾ 失業 문제의 원인은 당시 實業教育의 부실

였다. 이후 1960년 ‘교육과정심의회’ 규정에서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현재와 같이 총론과 각론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1960년 이전에는 교과과정과 교육과정의 사용이 혼용되었으며 교과과정 개정이 주된 관심 대상이었다. 이후 제2차 교육과정부터는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과정’을 합쳐서 일련의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공포하였다. (김성자, 앞의 글, 8쪽, 각주 7번 참조)

10) 劉奉鎬, 앞의 책, 326쪽.

11) ‘전교과과정변경’, 『경향신문』 1958.11.19.

12) ‘明年內에 教育課程 改定準備’, 『동아일보』, 1958.11.25.

13) 최영복, 「원자력교육지도요령」, 『문교월보』 47호, 1959년 8월. 이후 1964년에 가서야 전력 제한송전이 해제되었다. 최초의 원자력 발전은 1978년 4월 고리원자력 1호기 건설로 시작되었다.

14) ‘原子力研究에 拍車’, 『경향신문』 1958.11.29.

15) 심태진 外, 『道義教育의 理論과 實踐』, 民敎社, 1954.

16) ‘道義教育小考’, 『경향신문』 1958.3.9

17) 경기도지역사회 조사 중 무직과 교육에 관한 연관성 조사이다. 20~39세 남자 중에서 교육을 전혀 받지

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졌다. 1959년 문교부 국정감사에서 계열별 학생수에서 실업7:인문3의 비율을 지향하는 문교부 방침과 어긋나는 실업교육의 실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1959년 현재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교 정원보다 학생수가 11,210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교육에 대한 천대의식, 실업교사와 실습환경의 미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¹⁸⁾

정부가 실업 고교의 우선 증설 시책을 폈는데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유는 학생들이 취업보장도 안되는 실업고교보다는 대학 진학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인문 고교를 택하는 경향을 보여 실업 고교 운영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이다.¹⁹⁾ 실업교육 강화에 대응하여 필요한 교과서 260종 중 1960년도까지 출판 편찬된 것은 국정과 검정을 합하여 59종에 불과하였으며 이 역시 예산의 부족에서 기인하였다.²⁰⁾

제1차 교육과정은 단선형인 6-3-3-4(초-중-고-대) 학제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에서 인문계와 실업계를 구분하지 않고 계열에 관계없이 단일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교육 이념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인문계와 실업계를 구분하여 계열에 따라 다른 교과목을 배우거나 교과목의 시간배당을 달리한다면 인문계 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실업계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기회를 제약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²¹⁾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실업계 교육과정이 인문계와 구별되지 않아 실업계의 특성을 교육과정에서 구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육예산 등의 제약으로 실습장비나 실습환경을 갖추지 못하면서 실업교육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으며 오히려 인문계에 비해 기초학력까지 낮은 문제도 갖게 되었다.²²⁾ 실업교육에 대한 비판은 기회 균등이라는 교육 이념 대신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요구에 맞는 개별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로 수렴되었다. 학생의 처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진학준비에 置重한 교육과정 개선 요구가 대두한 것이다.²³⁾

이승만 정부 말 문교부는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정을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다. 1958년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²⁴⁾

못한 자는 16.6%, 1~6년간의 교육을 받은 자는 21.9%, 13년 이상 교육을 받은 자는 20.2%가 무직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즉 중등정도의 교육을 받은 자가 무직이 가장 많았다. 박희병, 『수도교육』 창간호, 1959년 8월, 85쪽.

18) '奇現象을 이룬 實業教育', 『동아일보』 1959.11.12.

19) 文教部 편찬, 『文教40年史』, 1988, 187쪽.

20) 「편수행정의 쇄신」 『문교월보』 51, 1960년 3월

21) 劉奉鎬, 앞의 책, 319쪽.

22) '갈피못잡고 허둥지둥 敎育十年의 발자취', 『동아일보』, 1958.08.16.

23) '현행敎育과정에 큰 변화가 있어야하겠다', 『교육평론』 23, 1960년 4월, 22~23쪽.

24) 제2차 교육과정 해설(문교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1963)에는 이 여론조사를 간략히 인용하면서

이 여론조사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찬성하는 비율은 초등학교 40.4%, 중학교 45.6%, 고등학교 50.2%로 나타났는데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육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 특징이다.²⁵⁾ 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 가장 불만이 많은 항목은 직업 교육, 그 다음은 도의교육으로 조사되었다.²⁶⁾ 여론조사 결과의 발표는 1960년에 있었지만 이미 조사가 1958년 중에 있었고 같은 해 말에 문교부가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으므로 여론조사 결과가 개정 계획 방침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교부는 여론조사와 더불어 교육과정 개정의 참고 자료 수집에 착수하여 유네스코 교육활동과 각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을 수집하고 번역하였다.²⁷⁾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여론 조사 및 기초 연구는 문교부 편수국의 편수관들이 주도하였다. 당시 문교부 편수국장은 박만규였는데 1958년부터 1960년 5월까지 재직하였으니 대체로 그의 주도 아래 구체적 작업이 진행되었던 듯하다.²⁸⁾ 이때 문교부 장관은 최재유였는데 1957년부터 1960년 4월까지 재직하였다.²⁹⁾ 1959년에는 교육과정 심의 기구로 ‘교육과정심의회’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교수요목제정심의회규정’과 ‘교과과정연구위원회 직제’로 중복되어 있는 교육과정 심의 관련 규정을 정리할 필요성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⁰⁾

이와 함께 문교부는 일시적인 교육과정 기초 연구에 한계를 느끼고 상시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관계자 및 학부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 여론조사 회답자(1,628부)의 약85%는 각급학교의 학부형이었고 기타 사회단체 및 공공기관이 나머지를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이 여론조사는 대체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일반 사회인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 여론 조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위한 기초 조사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홍순철, 「현행 교육과정 여론 조사의 종합보고」 『문교월보』 53호, 1960년 6월.

25) 교육과정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학교별	회답수	개정의 이유			
		실정과 안맞음	기초학력부족	구체적 목표 필요	시대에 뒤떨어짐
국민학교	783	28.1%	25.8%	28.6%	11%
중학교	1,232	26.4%	24.9%	25.0%	13.4%
고등학교	1,641	28.5%	18.7%	22.8%	14.3%

교육과정 개정해야 할 이유 (문교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1963, 5쪽)

26) 홍순철, 「현행 교육과정 여론 조사의 종합보고」, 51~52쪽.

27) 문교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1963, 6~7쪽.

28) 박만규는 해방전에 日本 文教省 中等教員檢定에 합격하였고 이후 全羅南道 順天 및 求禮 지역 학교 訓導, 京畿中學校 教諭, 景福中學校 教諭를 역임하였다.

29) 최재유는 京都帝大와 세브란스醫專 졸업한 醫學博士였으며 보건부 장관관을 역임한 사람이었는데, 1956년 보건부 장관을 사임하고 1957년에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장관이 교육전문가가 아니어서 당시 교육과정은 실무자들인 편수관들에 의해 주도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30) 김성자, 앞의 글, 8쪽.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학자들이 관련 연구에 참여하였는데,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연구가 편수관들 단독으로 이루어졌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및 실습활동 현황을 조사하고 외국의 자료를 모집하여 교육과정의 비교연구와 개정을 연구하는 교육과정 연구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연구실은 1958년 해외원조자금 중 2만 달러와 경제특별회계에서 책정된 1,980환의 예산에서 조달하여 문교부 청사부근에 1958년에 착공하여 다음해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다. 그렇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점점 미루어지다가 결국 설치되지 못하였다.³¹⁾

이상 살펴보았듯이 제1차 교육과정 수립 이후 사회 변화와 더불어 교육계 내, 언론 등을 통해 실업교육 문제, 도의교육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의 문교부는 편수국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기초조사작업을 수행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등이 일어나면서 본래 계획했던 1960년 개정 교육과정의 공포는 나중으로 미루어졌다.

B. 서구 교육 이론의 수용과 경험중심교육과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서구의 교육이론이 끼친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시작하던 당시 각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수집하고 번역하였는데, 서구 교육과정 이론은 단순한 참조 사례에만 그치지 않았다. 1950년대 미국은 對韓 교육원조를 추진하였는데, 1952년 유네스코(UNESCO ;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와 운크라(UNKRA ; 국제연합한국재건단)에서 교육계획사절단이 파견되어 1953년 한국교육개선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6·25 전쟁 직후 한국사회 복구를 위해 실시한 국제연합 재건사업의 일환이었다.³²⁾

1952년부터 1962년까지 10년간은 4차에 걸쳐 미국교육사절단이 직접 방문하였다. 1952년에 내한한 제1차 사절단은 메리 하베이지(Mary Harbage)를 단장으로 하는 7인으로 약 10개월간 서울, 부산 등지에서 민주적인 교육행정, 교육과정, 학습지도법을 주제로 각급 교원에게 현직교육을 실시하였다. 1953년에 내한한 제2차 사절단은 베스터 머홀랜드(Vester M. Mulholland)를 단장으로 하는 6인으로 제1차 사절단과 마찬가지로 현직교육에 주력하였다. 1954년 내한한 제3차 사절단은 해롤드 벤자민(Herold

31) 成宗圭, 『韓國教育課程變遷史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出版部, 1983, 261쪽.

32) 이 보고서는 “아동들이 민주적 협동정신을 준비하기 위한 경험이 학교 안에서 마련”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학교 안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다. 교육과정에 있어서 “생활과의 절단”이라는 교육 문제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육내용이 “생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직업·기술 교육을 강조하여 교육간의 경계선을 없애고 일반교양과 함께 직업 기술을 가르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당시 식량농업기구(FAO)에서 설치를 권고한 농업기술학원 같은 것을 권고하였다. 文教月報特報, 『大韓民國의 教育再建(유네스코·운크라 派韓 教育計劃 使節團 最終報告書)』, 1953 ; 김종서·이홍우, 「한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외국교육학자의 관찰」 『교육학연구』 18권 1호, 1980에서 재인용

Benjamin)을 단장으로 하는 13인으로, 이때에는 앞선 두차례 사절단과 달리 문교행정 전반에 대한 조연과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지도가 주된 목적이었다. 1956년에 내한한 제4차 사절단은 윌라드 가스린(Willard Goslin)을 단장으로 하는 조지 피바디 대학 교수단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1962년까지 6년여 간 주로 사범교육에 대한 물질적인 원조와 교사 연수를 수행하였다.³³⁾

미국 교육사절단은 서구 교육이론이 유입되는 주요 통로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냉전 질서 아래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주도적 질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이념의 전파에 노력하였다. 미국이 운크라 등을 통해 한국 교육 원조와 사절단 파견에 나선 것은 전쟁 이후 한국사회 재건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50년대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소련의 팽창에 맞서 미국이 세계에 민주주의를 전파해야 하며 교육이 이러한 미국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았다.³⁴⁾

미국교육사절단이 한국의 교육현실을 비판하고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진보주의 교육이론이었다.³⁵⁾ 근대교육의 출발 이후 서구 교육학계에서 지적 전통주의의 입장은 1920년대 사회적 행동주의, 1930년대 경험주의에 의한 도전을 받고 있었고 1940년대부터 1950년대 전반기까지는 어느 하나의 사상적 우위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즉, 진보주의 교육이론과 그에 따른 경험중심교육과정이 점차 약화되어 갔던 것이 당시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⁶⁾ 진보주의 교육이 퇴조하는 경향 아래에서 미국교육사절단이 한국에서 이러한 경향을 강조한 것은 미국 내의 사정에서 유래한다. 미국교육원조 구성원들은 1950년대 미국 사회 보수화가 진행되면서 미국 정부가 진보적인 사회 의제들을 묵살하자 해외로 진출하여 자신들의 사회적 개혁안들을 실행하려 했던 것이다.³⁷⁾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네차례 파견된 미국교육사절단 가운데서도 제3차 사절단의 활동이 주목된다. 이전 사절단이 주로 한국교육 관찰, 조연 등에 초점을 두었다면 제3차 사절단은 “한국의 교육과정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임무를 갖고 파견되었다. 특히 사절단 단장이었던 해롤드 벤자민은 진보주의 교육이론가로서 경험중심교육 과정에 대한 확고한 신봉자이기도 했다.³⁸⁾ 미국 교육사절단의 보고서는 경험중심교육

33) 성하원, 「조지 피바디 교수단원 활동사항 (I)」 『문교월보』 46, 1959년 7월, 71~72쪽.

34) 이주영,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민주주의 전파 -해외공보정책의 개혁과 대한 교육사절단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39, 2014, 141~143쪽.

35) 김중서·이홍우, 앞의 글, 87쪽.

36) 최정희, 앞의 글, 133~134쪽.

37) 이주영, 위의 글, 142쪽.

38) 해롤드 벤자민은 미국 내 보수화와 학문중심교육과정에 반발하여 ‘검치호랑이교육과정(The

과정의 원리와 조직, 평가 등을 해설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교과별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³⁹⁾ 한국 교육에 대한 관찰이나 분석보다는 경험중심교육과정에 대한 소개 혹은 해설서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교육과정을 교과중심과 경험중심으로 구분하고, 교과중심교육과정은 “학생이 공부해야 할 주제, 배워야 할 기능, 그리고 외워야 할 사실”을 가르치고 경험중심교육과정은 “학교가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험”을 가르친다고 하였다. 이 구분을 전제로 교과중심교육과정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한국 교육이 학생의 “생활 경험”과 유리된 단편적인 교과서적 지식을 입학 시험을 위해 맹목적으로 암기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일관되게 “학습은 경험을 통하여 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육내용이 사회생활에 유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⁴⁰⁾ 이러한 경험중심교육과정은 민주주의 교육 또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진보적 교육관과 연관되어 왔다. 그런데 미국사절단이 소개한 경험중심교육과정은 그러한 진보적 의제 설정보다는 교육 방법으로서의 ‘경험’, 실용성의 측면으로서의 ‘경험’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정희는 경험중심교육과정을 강조한 3차 사절단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제1차 교육과정에서 교과주의와 경험주의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었다고 보았다.⁴¹⁾ 그런데 3차 사절단의 방문 시기가 1955년 제1차 교육과정 개정과 일치하지만 그것이 제1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줄 시간 여유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영문 보고서의 발간 시기가 1955년이고 이것이 국문으로 번역된 것이 1956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3차 사절단의 경험중심교육과정에 대한 권고는, 1958년부터 개정이 본격화되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 그 영향력이 발휘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미국 교육사절단이 서구 교육과정 이론 유입의 유일한 통로는 아니었는데, 당시 미국에 직접 유학하여 진보주의 교육을 전공한 학자들이 있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 대학에서 교육과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영덕은 4·19 혁명 이후부터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상에 기초한 한국교육에 대한 비판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최정희는 이 무렵부터 교육과정 담론 주도층이 현장 교사에서 미국 유학 출신 교육학자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였다.⁴²⁾ 1950년대 초 아직 진보주의 교육 사조가 퇴조하기 이전 미국에서 유학한 교육학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영향력을 발휘하기

saber-toothed tiger curriculum)’이라는 교육 우화를 페디웰(Peddiwell)이라는 假名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복영 外 譯, 『검치호랑이교육과정』, 양서원, 1995.

39) 이 보고서는 본래 1955년에 영문출판되었는데 이후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이를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徐明源 譯, 『教育課程指針』, 中央教育研究所, 1956.

40) 徐明源 譯, 위의 책, 15~45쪽.

41) 최정희, 앞의 글, 136쪽.

42) 최정희, 앞의 글, 139~140쪽.

시작한 것이다. 미국이 1950년대 말 이후 학문중심교육과정으로 전환되고 진보주의가 퇴조하는 경향 속에서 한국이 경험중심교육과정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는 이러한 학문 수입의 시간 차이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서구 교육과정 이론은 미국 교육사절단의 방문과 보고서 발간, 미국 유학 교육학자들의 담론 주도를 통해서 제2차 교육과정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진 미국의 이론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미국의 진보주의, 경험중심 사조 등은 당시 실업교육에 대한 비판, 경제 발전의 요구 속에서 입시교육에 매몰된 한국교육 현실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겨져 더욱 각광받을 수 있었다.

C. 허정 과도정부와 장면 정부의 교육정책과 ‘교육의 민주화’

1960년 3·15 부정 선거를 계기로 일어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의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민주당 정부의 제2공화국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4·19 혁명에 적극 가담하였는데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이후 보수적인 기성세대들은 학생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두려움을 보였다. 허정 내각이 이끄는 과도정부의 첫 문교부 장관인 이병도는 취임사를 통해 “... 이제 학생 제군은 각기 본분으로 돌아가 學業에 精進하여 ... 각 학교의 질서도 학생 제군의 힘으로 잘 유지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당시 혁명으로 인한 학생들의 사회 참여 열기는 ‘교육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옮겨가 교원노동조합 설립운동, 대학의 학원민주화 운동 등이 활발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교육계의 騷擾에 대해 보수 세력들은 우려를 표시하였다. 허정 과도정부는 1960년 5월 26일 문교부령 제69호로 ‘학원 정상화를 위한 긴급 조치의 건’을 공포하였고 교원노동조합도 불법으로 규정하였다.⁴³⁾ 즉 과도정부의 특성상 질서 및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새로운 정부 수립이 예견된 이상 개정 교육과정의 공포는 예정된 기한을 넘길 수 밖에 없었다.

과도정부에서 새로 편수국장으로 임명된 전해중은 문교시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밝히면서 “참다운 민주교육에 알맞은 교과서를 편수하기 위하여서는 「교육과정」이 다시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여기에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안목이 서 있어야 하겠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라고 하여 교육과정의 개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단순히 교육과정 개정 발표를 연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4·19 혁명을 거치면서 ‘민주교육’ 또는 ‘교육의 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들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⁴⁴⁾ ‘교육의

43) 『文教40年史』, 234~237쪽.

44) ‘당면한 문교 시책의 구현안’, 『문교월보』 53, 1960년 6월, 8쪽.

민주화'는 교육의 지방 분권 제도 실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과의 분리 등 요구로 나타났다. 교육이 집권당에게 장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 민주화의 보장을 헌법개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⁴⁵⁾ 오천석은 '교육의 민주화'가 민주주의 이념을 지도정신으로 삼은 교육관이며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解放, 중앙 집권제의 止揚, 교육자주성의 확보, 교사와 공무원 직제의 분리, 관료주의로부터의 解放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⁶⁾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교육의 민주화' 담론이 제기되면서 초중등 교과과정과 교육과정 시간 배당을 도 또는 교육구에 이양하는 방안도 제기되었다.⁴⁷⁾ 교육학자들도 새로 수립될 정부에 대한 기대를 피력하면서 교육과정의 구성 권한을 각급 학교에 이양하는 방안, 국정교과서 제도의 청산을 주장하거나⁴⁸⁾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한 교육과정 계획의 장려, 다종다양한 교과서 출판 허용, 학교 단위 교육과정 연구 등을 주장하였다.⁴⁹⁾ 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주장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기대를 표시하였다.

1960년 7·29 총선을 통해 민주당의 장면 정부가 출범했는데, 장면 총리는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교육내용을 쇄신하여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생활지도를 체계화해서 과학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을 개선할 것"을 천명하였다.⁵⁰⁾ 같은 해 8월에 신임 문교부장관으로 취임한 오천석은 문교 행정의 쇄신이 민주화 구현에 있다고 하였다. 이후 문교부는 제2공화국의 교육지표에 대해 "... 과거의 모든 독재적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 교육 행정을 민주화하는 길만이 문교 행정이 나아갈 지표이자 신조가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념을 문교 행정 실체에 반영시키기 위해 첫째 교육자치제도 강화와 교육 중립화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둘째 중앙 정부가 장악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문교부의 지도행정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구상되었다.⁵¹⁾

이렇게 4·19 혁명 이후 과도 정부와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의 민주화'가 새로운 교육 담론으로 등장하자 교육과정의 개정은 이에 대한 반영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⁵²⁾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던 문교부 편수국장이 1960년 10월 조병욱⁵³⁾으로 교

45) 유영대, '教育界의 民主化運動(下)', 『동아일보』, 1960.04.04.

46) 오천석, 「교육민주화의 방안」 『사상계』 83, 1960년 6월, 208~213쪽. 오천석은 미군정기 민주주의와 아동존중을 근간으로 하는 새교육운동을 주도하였으며 1950년 대한교육연합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장면정부의 문교부 장관으로 교육정책을 주도하다가 5·16 군사정변 발발 1개월전에 사임하였다.

47) 박희병, 「4·26과 교육의 전환 - 교육행정의 전환점」 『문교월보』 53, 1960년 6월, 15쪽.

48) 김호권, 「새 정부에 기대하는 일 - 교육과정과 교과서 문제」 『문교월보』 55, 1960년 8월, 62~65쪽.

49) 이영덕, 「교육과정과 교과서 문제」 『문교월보』 56, 1960년 10월, 19~22쪽.

50) '張總理 施政方針을 闡明' 『경향신문』 1960.09.30.

51) 『文教40年史』, 239~241쪽.

52) 1960년도의 獎學方針은 '교육 자치제의 강화', '학원 분규 수습' 등이었다. 『文教40年史』, 241쪽.

체되기는 하였지만 나머지 다수의 편수관들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익명의 편수관은 4월 혁명 이후에도 편수관실은 “무풍지대”였다고 하였다.⁵⁴⁾ 편수관이 대폭 교체되는 일이 없었고 “무풍지대”로 불릴 만큼 오랜 기간 근무한 편수관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점은 1958년 시작된 문교부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1960년 장면 정부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짐작케 한다. 다만 ‘교육의 민주화’ 등을 교육과정 개정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의 문제로 인해 교육과정의 개정은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다.

Ⅲ. 군사정부의 교육과정 개정

A. 군사정부의 교육정책과 학제개편 문제

4·19 혁명 이후 수립된 장면 정부 시기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틈타 박정희 등 군부세력들이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이후 박정희 주도의 공화당에게 형식적 민정 이양이 되는 1963년 12월까지 약 2년 7개월 간 군사정부가 수립되었다. 군사정변과 동시에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① 간접 침략의 분쇄 ② 인간 개조를 위한 정신혁명, 교육 혁명 ③ 빈곤 타파를 위한 생산 기술 교육 강조 ④ 文化革新의 네가지를 문교시책으로 내세우고 이에 맞추어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장학 지도를 펼쳤다. 서울시의 경우 ‘①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 ② 생활 지도의 개선 ③ 실업 교육의 강화 ④ 건강 교육의 강화 ⑤ 郷土學校의 육성 ⑥ 현지 교육의 충실 ⑦ 학교 관리의 합리화’ 7가지를 장학 방침으로 세웠다.⁵⁵⁾

문교 정책의 입안가들은 이제 군사정부가 내세운 혁명 과업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교기획위원인 왕학수는 4·19 혁명 이후 “책임이 따르지 않은 방종주의”로 흘렀고 장면 정부를 “無軌道한 自由濫用의 시대”라고 규정하였다. 군사정부 아래 교육목적으로는 “관리가 되어 아랫사람을 부려먹는” 것이 아닌 “인격의 완성과 기능을 練磨하여 有爲有能한 國家公民”을 양성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교

53) 조병옥은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하였고 평양사범 敎諭, 경성공업 敎諭를 거쳐 서울대 사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54)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몇가지 제안」 『문교월보』 55, 1960년 8월, 43쪽.

55) 『文教40年史』, 242~243쪽.

육과정은 “혁명과업의 완수를 목표로 대폭 수정개편” 되어야 하며 “향토 및 국토를 개발하여 고도의 생산의 증액을 보기 위하여 勤勉精神을 高次”하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군사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인간 개조의 논리와 연관되는데, 즉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道義的인 면에서 責任이 강조되고 生産的인 면에서 勞作이 중요시 되어야” 함을 의미하였다.⁵⁶⁾

혁명과업과 인간개조라는 군사정부의 새로운 이념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정은 더욱 뒤로 미루어졌다. 이승만 정부 당시 1960년 공포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이후 4·19 혁명을 거치면서 1961년으로 미루어졌는데, 군사정부 수립으로 다시 연기되었다. 시기만 연장한 것이 아니라 군사정부는 교육 분야에서 舊惡을 일소한다는 명분 아래 많은 문교부 관리를 교체하였다. 교육 과정 개정 작업의 주역을 담당했던 기존의 편수관들도 모두 교체되고 새로운 편수관들을 공개 시험을 통하여 현직 교직자 중에서 선발하였다.⁵⁷⁾ 1958년 이후 추진된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까지 인적 구성에 있어서는 큰 변화없이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⁵⁸⁾ 5·16 군사정변 이후 편수관들이 교체되어 교육과정은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⁵⁹⁾ 군사정부는 이전의 문교정책과 문교관리들을 근본적으로 불신하였는데 1961년 12월 31일자 문교부가 보고한 「문교업무 현황 및 혁명문교주요업적」에서 기존 문교부에 대한 평가는 ‘ㄱ.직원의 정실인사, 부패, 무능, ㄴ.문교행정의 권위 추락, 명령 불복, ㄷ.교육예산의 정치자금 유용’ 등으로 되어 있고 이는 이후 문교부 관리의 교체, 문교부 내 통제 강화 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⁶⁰⁾

문교부는 1961년 8월에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교육과정심의회를 열어 수정을 요하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예비자료를 수집하였다.⁶¹⁾ 또한 1961년은 「교육과정 개정의 해」로 정하여 동년

56) 왕학수, 「혁명과업-교육개혁은 급선무다」 『교육평론』34, 1961년 7월. 왕학수는 1936년 대구사범학교 심상과와, 1941년 일본 上智大學 철학과를 졸업하였고 해방 이후 1948년 문교부 사범학교 교과과정심의위원, 1962년 대한교육연합회 교육정책위원장, 1963년 문교부 교육정책심의위원, 1964년 중앙교육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57)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정책의 이념(Ⅱ)』 연구보고 RR86-33, 1986년, 216쪽.

58) 앞의 각주 43번 참조.

59) 『한국교육정책의 이념(Ⅱ)』에서는 당시 공채된 편수관 중 한명인 박상만과의 면담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이 연구보고에서는 편수관들의 교체로 개정을 위한 준비 자료들이 새로운 편수관에게 전혀 인계 되지 않은 채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나 기존 여론조사 및 개정의 일부 방향은 그대로 계승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인적 개편은 있었지만 전면적인 수정이라기보다는 군사정부의 교육 이념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60) 이해영 외, 앞의 책, 78쪽.

61) 이회복은 당시 문교부 편수관이었다. 당시 교육과정심의회를 통해 교육과정 개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1.시대의 진운과 국가 재건의 당면 목표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융통성을 가지도록 한다. 2.교육 과정의 최저 기준을 확정하여 지역 사회와 학생의 능력에 맞는 융통성을 가지도록 한다. 3.지식

12월말까지 초중고 교육내용을 전면 쇄신하고 1962년 새교과서 「개편의 해」, 1963년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생이 새 교과서로 공부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⁶²⁾ 그런데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국가재건최고회의 기획위원회의 文教小委에서 학제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다. 당시 문교소위가 마련한 試案은 ① 국민학교 6년으로 하고 4학년까지는 완전무상교육 실시 ② 중학교는 4년, 2년을 나누어 4년 뒤 졸업을 허가하고 또한 실과대학진학도 허용하며 ③ 실과중학교는 4년으로 하되 졸업뒤 실과대학 또는 중등학교 5학년에 입학할 수 있으며 ④ 실과대학은 4년으로 하고 졸업 뒤 일반 대학 3학년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었다. 이는 고등학교 제도를 없앤 것으로 학제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하였다.⁶³⁾ 이는 기존 6-3-3-4 학제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병립제를 채택한 것으로 실과계통의 초급중학교3년제, 중학교 4년제 및 대학 4년제를 병설토록해서 교육과정의 균형화와 實科 치중화를 목표로 한 새 학제안이었다.⁶⁴⁾

학제개편은 이전부터 논란거리였다. 1951년 제2차 교육법 개정으로 6-3-3-4제의 단선형 기본학제가 시행된 이후 이에 대한 보완과 개편론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학제개편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중등 6년의 수업 연한이 길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나누어져 있어 불필요한 입시 부담을 二重으로 안게 되고 또 경제적 부담도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⁶⁵⁾ 뿐만 아니라 실업교육의 부실화가 문제되면서 인문계에 경도된 단선형 기본학제가 실업교육 부실화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6-3-3-4 단선형 학제가 여러 선진국의 제도로서 안정적이며, 향후 초등 6년의 의무교육이 완성되면 중학 3년이 의무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고를 통합하지 말고 각각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⁶⁶⁾ 또는 학제개편이 일제시대의 제도로 후퇴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현행 학제를 그대로 두고 제도 운영을 통해 개선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⁶⁷⁾

이승만 정부 말인 1959년 11월에 문교부 장관이 學制再編을 위한 二院制教育法改正案을 곧 국회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⁶⁸⁾ 이후 민주당 정부 시기인 1960

이해 편중에서 벗어나 태도와 행위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한다. 4. 기초 학력의 충실을 기하도록 한다. 5. 학교별 목표를 명백히 하고 교과 상호간 학교 상호간의 관련을 긴밀히 하도록 한다. 6. 민족 문화와 국토 애호를 위하여 具象化할 수 있도록 한다. 8. 향토 사회의 과제를 학교 교육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회복, 「교육과정의 개정」 『교육평론』 38, 1961년 11월, 56~57쪽.

62) ‘初中高 教育內容을 全面刷新’ 『경향신문』 1961.07.27.

63) ‘文教小委 학제개편에 試案’ 『동아일보』 1961.08.01.

64) ‘현행학제를 改正 중·고교 통합키로’ 『경향신문』 1961.08.01.

65) 『文教40年史』, 282쪽.

66) 주기용, 「중고등학교 교육 개혁을 위한 제언」 『교육평론』 18, 1959년 11월, 54쪽.

67) 이호성, 「학제를 輕率히 改正말라」 『교육평론』 10, 1959년 1월.

68) ‘학제개편구상 교육법개정 곧 제언’ 『동아일보』 1959.11.18.

년 12월 국회 문교위원회에 출석한 오천석 장관은 질의에 답하는 중 “앞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학제를 위하여 학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러나 현행학제도 그 제도는 나쁘지 않은데 다만 그 운영과 행정면이 나쁘다고 본다”고 하여 학제에 대한 검토의 뜻을 보이기도 하였다.⁶⁹⁾ 당시 정부 학제개편의 구체적인 안은 확인할 수 없으나 기존의 단선제 학제에서 벗어난 인문 실업 이원제(병립제) 방안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학제개편안에 놓고 문교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였다. 1961년 8월 1일 개최된 공청회에는 문교부의 新 학제안과 기존 학제 整備안을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신 학제안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이 양에 치중하여 농촌 출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현실에 맞지 않으며,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고, 중·고등학교 통합과 실과대학 수립으로 교육연한을 조정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자고 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제 개편에 막대한 국가재정이 필요하며 실업생산교육의 장려는 필요한 것이냐 이는 기존 학제의 운영을 보완하는 면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중·고등학교 통합의 근거가 되는 입시문제는 학제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學校差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⁷⁰⁾ 당시 일부 권력층이 權力과 金力을 배경으로 同系學校進學 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학교의 학급 정원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동계학교 학급증설을 요구하고 입학시험에 떨어진 자녀들을 입학시키려고 하여 사회 병폐로 지적된 점도 학제 개편안 요구에 힘을 실어주었다.⁷¹⁾

군사정부에서 학제개편을 추진한 이유는 위와 같은 개편 요구에서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경제 개발 계획의 추진 과정에 필요한 재정 확보 차원으로 여겨진다. 즉 경제 개발에 막대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높은 교육열에 의한 교육비 수요가 그 장애 요인이 된다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다.⁷²⁾ 경제개발 계획은 재정 문제에서 뿐 아니라 교과 운영에서도 교육과정과 연관되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수행되면서 빈곤 타파와 각 부문에 소요되는 기술 능력을 가진 인적자원의 확보계획이 요구되었다. 이에 막연한 시간배당 기준만 있었던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구체적인 내용안으로 제시하자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또한 교육 내용에 있어서 두가지 측면이 강조되었는데, 첫째 생산성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근로 노작 습관을 기르고 기계화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둘째 유용성을 강조하여 사회의 요구와 필

69) 成宗圭, 앞의 책, 256쪽.

70) ‘학제개편안에 贊否 半半’ 『동아일보』 1961.08.03.

71) ‘사실 -중고등학교교육에 대한 몇가지 提議’ 『동아일보』 1962.01.22.

72) 『文教40年史』, 282~283쪽.

요를 학습의 과제로 설정하고 학습경험이 지식, 기능, 태도의 습득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⁷³⁾

학제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복잡해지면서 1962년으로 예정되었던 교육과정 개정은 연구검토 기간이 연장되어 1963년으로 다시 연기되었다.⁷⁴⁾ 학제가 개편되면 교과목 편제와 교과과정이 그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제개편 논의가 계속되는 와중에 교육과정을 확정지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불어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실업교육 강화책과 교육과정 개정 문제가 연계되어 종합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군사정부는 1962년 5월 학제개편 실시 여부를 1년간 더 연구검토하여 내년(1963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⁷⁵⁾

주목되는 점은 교육과정 개정 업무를 맡은 문교부 편수국에 대한 직제 개편이다. 1961년 10월 정부 조직법 개정 공포를 통해 종래의 편수국이 폐지되고 학무국(편수과, 교육과정과)에 통합되었으며 편수국에 소속되어 있던 편수관이 장학관과 함께 신설된 학무국에 속하게 되어 사실상 장학 기능과 편수 기능이 통합되었다. 이후 1963년 12월 문교부 직제가 개편되어 5·16 군사정변 이후 설치되었던 학무국이 폐지되고 편수과는 다시 편수국으로 승격되었다.⁷⁶⁾ 본래 1961년 10월 정부 조직법 개정 공포를 통해 문교부 직제가 개편되어 교육과정 개정이 학제개편 및 여타의 교육 현안과 연관되어 있던 상황에서 행정 일원화를 위한 직제개편으로 여겨진다.

B. 제2차 교육과정 성립과 그 성격

군사정부는 전면적인 新 학제 개편은 유보하고 대신 기존 학제를 보완하기로 결정하고 1963년 교육법을 개정하여 5년제의 실업고등전문학교 설립 규정을 마련하였다. 경제 개발 계획 추진에 필요한 技能工 확보를 위해 중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진학하도록 하였다. 이후 교육과정 개정 이후인 1964년 교육제도심의회를 구성하고 학제 심의를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계속 논의하였으나 결국 교육 발전의 후퇴라고 지적하는 여론이 많아 학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이루어지지 않았다.⁷⁷⁾ 학제 개편

73) 김종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교과 운영」 『문교공보』 64, 1962년 11월, 18~19쪽.

74) '학원파벌조성자를 정리' 『경향신문』 1962.04.27.

75) "정부는 그동안 추진중에 있던 학제개편안을 1년간 더 연구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학제개편의 실시여부에 대한 결정자체를 내년도에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은 조치는 학제개편이 교과과정 개편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정부는 이학제개편을 1962년도 사업계획으로 책정추진했으나 신중히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실시여부 자체를 내년도에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학제개편 여부 내년으로 延期' 『경향신문』 1962.05.01.

76)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 편수사 연구(I)』, 2000, 269쪽.

77) 실업고등전문학교는 단기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1970년 1월에 2~3년

논의를 중단하고 新 학제를 유보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학제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였고 무엇보다 학제 개편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또 개편이 시행될 경우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기의 혼선이 국정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짐작된다.

1961년 8월 교육과정심의회가 구성되었고, 이어서 1961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교육과정령 시안이 두달 동안 작성되었다.⁷⁸⁾ 1962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작성된 시안이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 기관 약 600개소에 발송되어 여론을 청취하였다. 1962년 9월 교과별 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안을 재검토하였고 11월 초순에 원안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1963년 2월 15일에 문교부령 제119호로 개편된 교육과정령이 공포되었다.⁷⁹⁾ 1961년 12월에 시안이 작성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개시되기까지 5개월이 걸린 이유는 앞서 서술했던 학제개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1961년 학제개편 논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개시된 것은 그러한 이유라고 추정된다.

제2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민주적 신념이 확고하고 반공정신이 투철하며, 민주적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적합한 학습경험을 포함시킨다.
- ② 독립 자존의 민족적 기풍과 아울러 국제 협조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경험을 포함시킨다.
- ③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과 유용한 기능 및 과학적 생활태도를 기르는 데 직결되는 학습경험을 포함시킨다.
- ④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학습활동을 충분히 포함

제의 전문 학교를 법제화하여 고등학교졸업과 동시에 이에 연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실업 고등 전문 학교는 전문 학교와 병존하게 되었으며, 일부는 전문 학교로 대치되다가 1976년에 이르러 전문 학교로 완전 대치되었다. 『文教40年史』 282~283쪽.

78) 당시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김선일	문교부 장학실	이희복	문교부 편수관
왕학수	고려대학교	정범모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태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이영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서정근	서울중앙고등학교	백현기	중앙교육연구소
심태진	서울시 교육위원회	이규백	한강국민학교
최현배	한글학회	주기용	오산국민학교
김기성	단국대학교		

문교부,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 명부, 1961 ; 『한국 편수사 연구(1)』, 268쪽에서 재인용.

79) 문교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1963, 7~8쪽.

시킨다.

- ⑤ 건전한 정신과 강건한 신체를 가진 국민을 양성하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
- ⑥ 국민생활을 순수하고 명랑하게 하는 심미적인 정서생활을 위하여 풍부한 개성을 개발하도록 한다.
- ⑦ 형식적·추상적 지식에 치우쳤던 반공·도덕 교육을 쇄신하여 일관성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교육에 주력한다.⁸⁰⁾

제2차 교육과정의 이러한 기본방향은 군사정부가 앞서 제시한 반공 의식의 철저한 침투를 통한 간접 침략의 분쇄, 인간 개조, 빈곤 타파, 문화혁신 등의 교육 시책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렇게 1955년 제1차 교육과정 공포 이후 8년 만에 개정된 교육과정 실시는 연차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어, 1964년도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제2차 교육과정이 갖는 특징은 무엇일까? 첫째 제1차 교육과정은 교육 과정의 전체 구조가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두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⁸¹⁾ 그런데 제2차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반공·도덕 활동, 특별활동의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반공·도덕 교과를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 주당 1시간씩 배우도록 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반공교육이 하나의 교과목이 아니라 전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중에 이루어지도록 안배되어 있었으며 ‘도의교육요항’에 포함되었다.⁸²⁾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7년 道義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도의교육 강화가 추진되었던 흐름은 제2차 교육과정기 반공·도덕 활동의 독립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업교육이 강화되었다. 1963년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문교부령 제122호로 제정되어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인문과 실업계를 구분하지 않은 단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채택하였으나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편성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제1차 교육과정에서 실업전문교과 배당 시간수가 30% 정도였으나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50%로 확대되었다.⁸³⁾ 이러한 실업 교육의 강화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수행을 뒷받침하기 것이기도 하였다. 1962년 당시 문교부 수석 장학관 조기환과 경제기획원 조정국 기술과장 전상근, 수도공업 초급 대학장 홍경섭은 다음과 같이 실업 교육이 강조된 배경을 언급하였다.

80) 劉奉鎬, 앞의 책, 328~329쪽.

81) 劉奉鎬, 앞의 책, 311~315쪽.

82) 조건, 「제1차 교육과정 성립기 문교부 조직과 반공 교육정책」 『역사와교육』 22, 2016년 4월, 178쪽.

83) 劉奉鎬, 앞의 책, 335쪽.

조기환 : 국가 시책의 빈곤과 사회적 폐습이 실업교육의 진흥을 구두탄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혁명 이후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책으로 실업 교육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그 현실적 의의인 줄 압니다.

전상근 : 5·16 혁명 후 경제 재건이다, 기술 진흥 5개년 계획이라 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요는 자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자본인 인적 자원을 5개년 계획 동안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교육에서 크게 문제를 삼아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까지의 실업 교육은 계획이 없는 교육이었지요. ... 당면 문제로서 시급한 것은 기술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업교육의 방향도 필연적으로 이 기술공 양성에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홍경섭 : 저는 졸업생을 낼 때마다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자립을 하여야 한다. 이것 없이는 자주 독립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 생산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학교에서는 실업 과목을 50% 내지 60% 선까지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반대를 합니다. 대학 진학이 안된다는 것이지요...⁸⁴⁾

즉, 기술공의 확보를 통해 경제 개발을 실현하려는 정책적 필요가 제2차 교육과정 기 실업교육의 강화 방안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군사정부들어 갑자기 실업 교육 강화 방안이 등장한 것은 아니다. 앞서 보았듯이 실업 교육 강화 요구는 교육과정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1958년부터 꾸준히 교육과정 개정의 한 방향으로 언급되어 왔었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상의 학교 혹은 학생의 교과목 선택의 여지를 줄여 융통성을 제약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생활 등 8개가 필수 과목이었고 실업 및 가정, 외국어, 기타 교과를 선택 과목으로 하여 학교 특성에 따라 교과목의 시간수를 조절하는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선택 교과를 허용하지 않고 필수교과화하였다.⁸⁵⁾ 이는 교육과정의 국가주도적 성격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4·19 혁명 이후 교육 행정권의 분산과 교육과정 개별화, 학생 선택권 강화 등을 주장한 ‘교육의 민주화’ 경향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교육과정의 국가주도적 성격 강화는 이후 1968년 국민교육헌장의 선포, 1969년 제3차 교육과정 성립을 거치면서 점차 강화되어 갔다.⁸⁶⁾

넷째 경험중심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각

84) 「실업교육의 진흥 방안을 모색한다」 『새교육』 1962년 6월, 14쪽 ; 『한국교육정책의 이념(Ⅱ)』, 220쪽에서 재인용. 밑줄 친 부분은 필자가 강조한 부분이다.

85) 『한국교육정책의 이념(Ⅱ)』, 220쪽.

86)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Ⅲ)』, 78~79쪽.

교과교육과정의 각론을 구성하였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 ‘사회생활의 개선’이나 ‘학생들의 개성 및 욕구의 충족’등과 같은 표현은 제2차 교육과정에서 ‘경험’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명확히 되었다. 총론에서 명확하게 “교육과정은 곧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험 여하에 따라 그들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었다.⁸⁷⁾ 경험중심교육과정이 명확하게 된 것은 미국 교육사절단의 파견, 미국 유학 교육학자들의 등장으로 진보주의 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됨과 동시에 실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뒷받침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IV. 결 어

1958년 이승만 정부 아래 문교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교육과정 개정은 실업교육의 강화와 도의교육의 강화를 앞세워 시작되었다. 기존 교육과정이 실업교육을 등한시한다는 비판은 교육과정에서 실업계 교육과정을 독립시킬 것을 요구한 동시에 학제개편에 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 교육사절단 등은 진보주의 교육에 입각한 경험중심교육과정을 한국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허정 과도정부와 장면 정부에서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들이나 개편 방향은 거의 바뀌지 않았으나 ‘교육의 민주화’라는 새로운 교육 이념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이 잠시 연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군사정부는 기존 교육과정 담당 편수관을 교체하고 군사정부의 혁명 이념에 알맞은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제개편 논의가 활발하였으나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절충안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학제개편 논의가 연기되면서 본래 1960년 공포예정이었던 교육과정 개정이 1963년 이루어 졌다. 제2차 교육과정은 제1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도의교육에서 시작된 반공·도덕 교육의 강화, 실업 교육의 강화, 교육의 국가 주도성 강화를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 이는 그동안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벌어진 정부 정책의 변경, 관

87)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I)』, 80쪽.

런 여론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교육과정 개정은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라는 순수한 교육 활동의 결과로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 외적인 요구나 목적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에도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비판의 상당수는 그것이 교육 바깥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주도의 획일적 교육과정 아래에서 교육과정 개정은 정치적인 변화, 대중의 여론 등에 따라 수많은 굴절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생각해볼 시점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Dong-A Ilbo]

경향신문

[Kyunghyang Shinmun]

교육평론, 교육평론사.

[Gyoyugpyeonglon, Gyoyugpyeonglon sa]

문교월보, 문교부.

[Mungyowolbo, Ministry of Education]

수도교육, 서울시 교육연구소.

[Sudo gyoyug, Seou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김복영 外 譯(1995), **검치호랑이교육과정**, 서울: 양서원.

[Translation by Kim, B. Y.(1995). *Saber-Toothed Tiger Curriculum, Seoul*. South Korea: Yangseowon]

김성자(2014), 역사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내용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Kim, S. J.(2014) *The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content and the procedure of history curriculum revision* (doctora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김종서·이홍우(1980), 한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외국교육학자의 관찰, **교육학연구**, 18(1).

[Kim, J. S. & Lee, H. W.(1980) Curriculum and Instruction in Korean Schools as Observed by Foreign Specialis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8(1)]

류승렬(1996), 해방후 교육과정 변천과 역사교과의 위치, **歷史教育**, 60.

[Lyu, S. R.(1996). Curricular Changes and Status of School History from 1945 to 1996.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60.]

文教部(1988), **文教40年史**.

[Ministry of Education(1988). *40 years History of School education*. Seoul. South Korea: Ministry of Education]

문교부(1963),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Ministry of Education(1963). *Middle school curriculum handbook*. Seoul, South Korea: Ministry of Education]

成宗圭(1983), **韓國教育課程變遷史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出版部.

- [Seong, J. G.(1983). *A Study on the Changes in Korean Education Curriculum*. Seoul, South Korea: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심태진 外(1954), *道義教育의 理論과 實踐*, 民敎社.
- [Sim, T. J.(1954). *Theory and Practice of Moral Education*. Seoul, South Korea: Minumsa]
- 劉奉鎬(1992), *한국교육과정사 연구*, 교학연구사.
- [Yu, B. H.(1992). *Study on history of Korea school curriculum*. Seoul, South Korea: Gyohagyeongusa]
- 이주영(2014),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민주주의 전파-해외공보정책의 개혁과 대한 교육사절단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39.
- [Lee, J. Y.(2014). Reformation of the Information Policy and Democracy Promotion during the Eisenhower Administration. *American History Studies*, 39.]
- 徐明源 譯(1956), *教育課程指針*, 중앙교육연구소.
- [Seo, M. W.(1956). *Curriculum handbook for the schools of Korea*. Seoul, South Korea: Junganggyoyug-yeonguso]
- 조건(2016), 제1차 교육과정 성립기 문교부 조직과 반공 교육정책, *역사와교육*, 22.
- [Cho, G.(2016). The Organization of Ministry of Education and Anti-Communist Policy in the Era of Establishing the First Curriculum History and education. *History and Education*, 22]
- 조건(2017), 제2차 교육과정기 민족주체성 교육의 시행과 국사교과서 근현대사 서술내용 분석, *역사와교육*, 24.
- [Cho, G.(2017). Enforcement of Education of National Identity During the Period of the Second Curriculum and Analysis of Contents of Description i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History Textbook. *History and Education*, 24]
- 조성운(2017), 제2차 교육과정의 제정과 국사교과서의 편찬, *韓國史學報*, 66.
- [Cho, S. W.(2017). A Legislation of the Second Round of Educational Regime and a Publication of History Textbooks.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66]
- 조미영(2006), 해방 후 國史教科의 社會科化와 '國史科'의 置廢, *歷史敎育*, 98.
- [Cho, M. Y.(2006). The Inclusion of National History Education in Social Studies After the Liberation and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History. *The Korean History Education Review*, 98]
- 차미희(2006), 3차 교육과정기(1974~1981) 중등 국사과의 독립 배경과 국사교육 내용의 특성, *韓國史學報*, 25.
- [Cha, M. H.(2006). The Background and Content Characteristics of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n History for the Middle and High School in the Third National Curriculum Period(1974-1981).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25]
- 최정희(2017), 서구 교육과정 이론의 수용과 배제의 역사 - 제1차 및 제2차 국가교육과정의 재평가, *韓國敎育史學*, 39(2).
- [Choi, J. H.(2017). The history of adoption and rejection of western curriculum theories: re-evaluation of the 1st and 2nd national curriculum. *The Korean Society for History of Education*, 39(2)]
-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0), 한국 편수사 연구(Ⅰ), 연구보고서 2000-4.
-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2000). Study on the history of Korean school curriculum and textbook(Ⅰ), Research Report 2000-4.]
- 한국교육개발원(1986), *한국교육정책의 이념(Ⅱ)*, 연구보고 RR86-33.
-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1986). *The ideology of Korean education policy(Ⅱ)*. Research Report RR86-33.]
- 한국교육개발원(1998),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Ⅲ)*, 연구보고 RR98-08.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1998). *Study on the History of Modern Education after Liberation fro Japanese Rule*. Research Report RR98-08]

문지은 (moonji79@snu.ac.kr)

심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임. 국사 교육과정 및 현대 향토교육 운동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음.